

[비문학, 이해가 안 되는 문장 - 비문학에서의 정보처리]

- 읽으면서 와 닿지 않는 해석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 때도 반드시 막힌다.
- 인문, 사회, 예술 - 재진술을 이해하자
- 비문학 지문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.

비문학 한 지문을 통해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겠지만, 이 자료는 여러분이 기출 지문을 통해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 [의미를 문맥으로 파악]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쓰겠습니다.

● 문장 관계의 이해

비문학 공부를 하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 마주합니다. **1. 이해가 되거나 2. 이해가 되지 않거나. 2번의 경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.**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을 마주했을 때 그 다음의 문장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?

설명을 하거나, 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 일겁니다. 즉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뒤의 문장은 그 문장을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.

●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다

영어든 국어든 공부하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. 그다지 와 닿지는 않지만 말이죠. [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] 이고 [지문의 주제도 하나]입니다. 따라서 문장들의 관계를 이해할 때,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[관련성을 맺는다]라는 전제 하에 글을 읽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똑같이 [물]이라는 소재를 다룬다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 생명을 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[사전적 의미] 만으로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.

한 문단의 주제가 한 가지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은 서로 [설명] 혹은 [재진술]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읽게 됩니다. 주로 [인문, 사회, 예술]의 경우엔 대부분 이러한 재진술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

하지만 우리는 이렇지 않은 경우를 마주합니다. 특히 과학 지문과 때론 그 외에 지문이라 하더라도 [이해가 불가능한 문장] 들이 나오게 됩니다.

여기서 우리의 공부 방향성을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. **[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]이 필요한 걸까요?**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더 중요한 포인트는 **[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것]**임을 알고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입니다.

하지만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불안합니다.

“선생님 저만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아닌가요?”, “인강 선생님은 이 부분이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넘어가셨는데, 저는 아닌데요?”

즉, 읽으면서 본인의 독해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**[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모르는 채로 읽어도 문제는 풀린다]** 라는 것을 알고,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[나만 모르는 것] 같다는 느낌에 독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.

여러분이 학습하셔야 할 것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. 차분하게 독해를 해 나가

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, 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
미라오마 T 교재

면서, **[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구나]** 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

왜냐하면 **[사람마다 모르는게 다릅니다]**.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릅니다.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입장에서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,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학생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

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**[그건 상식이야]**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. 물론 정말 상식도 있겠지만, 그 상식의 기준은 정의하기 어렵지만, 의외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.

(* 너무 많은 학생들이 상식 부족을 걱정하지만, 상식이 부족한 것을 탓할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잖아요? 이 글의 후반부에 그냥 그것들은 **[내가 모르는 정보]** 라고 처리를 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.)

또 글을 읽는 수험생들 간의 배경 지식, 머리의 사고 처리 과정도 제각각입니다.

어떤 학생들은 철학 지문을 매우 쉽게 읽고, 흔히 지구 과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 지문들을 조금 쉽게 푸는 것처럼 한 지문을 읽었을 때, **[내가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]** 은 남과 다릅니다. 이때 자신을 탓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.

생각해보면 수능날 모르는 내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. 그게 상식인지 아닌지는 수능 끝나고 파악해볼 이야기지, 수능 때는 **[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]** 라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.

수능날 생각해보면, 이 내용을 원래 알아야 하는 것이든, 아니든 결국 **[내가 모르는 것]**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. 그래서 본인이

실전에서 부딪혀보면서 **[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]** 에 집중을 해봅시다.

지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**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?**

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

● **지문에서 모르는 내용, 이해가 안 되는 내용, 와 닿지 않는 내용은 모두 밑줄을 쳐보자**

그리고 그것들을 지문 내에서 이해를 해보려는 연습을 했습니다. 이때 앞서 말한 **[문장 관계]**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호한 부분은 **[지문 내에서 의미를 파악]** (* part 1 칼럼 참고)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

예를 들자면, 『신채호』 지문에서 “**자성을 자각한 후에 /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/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된다.**”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, 이 내용은 뒤에 별다른 설명도 없고 이 지문을 수십 번 읽어보아도 이해가 안 될겁니다.

(* 신채호를 열공한 친구는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거예요. 그 친구한테 그게 배경 지식입니다. 그런데 내가 모르면 이걸 모르는 채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!)

그럼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하면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걸까요?

그건 아닙니다. 처음 저 문장을 읽으면 우리는 **[왜? 저렇게 될까?]** 라는 반응을 하게

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, 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
미라오마 T 교재

됩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후 문장에 관심이 갑니다. 그 문장을 해결해 주길 바라니까요. **하지만** 저 내용을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부연설명이 필요하니까 왜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저렇다! 라고 전합니다.

우리는 이때 **[아.. 왜인진 모르겠는데 자성을 자각한 후에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나보구만]** 하시면 됩니다.

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, **문제를 통해**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은 저러한 것은 [왜]를 묻는 것이 아니라, [저 사실이 맞니, 틀리니]를 묻는 수준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점입니다.

아마 매우 힘든 과정일거예요.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닐까? 나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닐까?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말 그대로 **[감각]**이 쌓여야 하는 거니까요.

여기서 제가 제시한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풀고 나서 **[이 문장은 원래 이해할 수가 없는걸까?]**를 두 문장의 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.

좀 더 쉬운 예로 단순화 해보겠습니다. 과학 지문을 읽는다고 가정해봅시다. $A=B$ 라는 내용이 특 나왔습니다.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에 반응을 합니다. [왜 A가 B지?]. 이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며 뒤를 갑니다. (당연히 설명을 할지, 안 할지는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겠죠?) 이때 A가 왜 B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$B=C$ 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. (*여기서부터 과학이 불편해지고, 정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.)

그리고 그 다음에 $A=C$ 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, 많은 친구들은 앞서 두 가지 정보에 [쫄

아서] $A=C$ 라는 내용 [마저도] 외워야 할 것으로 포함시킵니다. 외울 것을 적게 만드는 게 과학의 핵심이에요. $A=B$ 다는 몰라요, B도 왜 C인지 몰라요. 그러나 여러분이 $A=C$ 라는 건 알면 됩니다.

기출 문제를 통해 확인해야할 것은 왜 A가 B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, " $A=B$ 이니?"를 묻는 다는 점입니다.

● 배경 지식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

위의 예에서 어떤 친구들은 "당연히" A가 B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[내가 A가 왜 B인지를 모른다면]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면 나에게 $A=B$ 라는 정보는 외워야 할 정보가 되는 거고, 그 친구에게는 그냥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정보인 겁니다.

물론 외워야 할 정보가 가급적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. 따라서 배경지식이란 것이 무조건 나쁘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정말 최악인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.

● 절대 배경지식은 지문을 이기지 못한다.

이 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지문에 **[온도가 올라가면 / 분자 운동이 활성화된다]** 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. 이 문장은 외워야 할 정보거나 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 둘 중 하나일 겁니다.

만약 이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한 학생이라면 이건 외워야 할 정보입니다. 뒤에 "온도가 올라가면 왜 분자 운동이 활성화 되는지"에 대해 나오지 않는다면, 문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성화 됩니까?를 사실 수준에서 골라내면 됩니다.

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, 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
미라오마 T 교재

그런데 이 내용을 알거나,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걸 굳이 외워야 할까요? 배경지식을 무조건 없애야 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굳이 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마치 **[주관을 개입하면 안돼]** 라는 생각만 가지고 다 외운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길어진 지문들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.

또 생각해보면 문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경지식을 빼고 읽을 수 있을까요?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읽다보면 배경 지식과 당연히 연결지어 읽게 됩니다. 다만 읽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

[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른 부분]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배경지식이 지문을 이기지만 않으면 됩니다. 그렇기에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?

- **꼼꼼한 독해**
- **반응하면서 읽기**

첫째로 꼼꼼히 독해해야 합니다. 저는 과학을 읽을 때는 더더욱 문장들 간의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읽습니다.

둘째로 반응입니다. 왜 반응이냐? 나의 상식과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, 그 상황은 사실 매우 **[충격적인]** 상황입니다. 그 충격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.

그렇지, 이런 내용은 맞지, 하면서 읽다가 [엥?? 뭐야 이거] 라면서 읽는다면 우리에게 그 내용은 [각인] 되거나 최소한 [외워야 할 정보로 체크]해 둘 수 있게 됩니다.

또 재밌는건 그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에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.

● 정리

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, 비문학은 **문장이 결합**되어 있는 것이며 문장들의 관계는 [설명] Or [설명 x] 로 구분될 겁니다.

이때 **인문, 사회, 예술 지문**은 [대부분] 재진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최소한 여러분이 독해를 하시면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염두해 둔 의미해석이 필요합니다.

(* **앞으로 단문 연습 지문을 예시로 좀 올려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해야할 연습은 지문에서 모르는 내용, 와 닿지 않는 것을 다 이해해보려고 하세요.**)

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밑줄 쳐두고 의미를 지문 내에서 대부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그리고 실전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막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장 내에 소재 찾고 문단 요약하고, 주제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진정한 독해력,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이런 경우 말고 과학지문 뿐만 아니라 비문학 모든 부분에서 **[설명하기엔 너무 많아 생략하는 부분]** 들이 나옵니다.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. 불편하구요. 그 내용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자면 끝도 없구요.

여러분에게 왜 A가 B인지를 묻진 않습니다. 그저 A가 B이니?를 묻습니다. [불편함을 끌고 가는 능력], [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안 되는 채로 끌고 가는 능력]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.

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, 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
미라오마 T 교재

이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나만 모르는 것 같거든요. 또 실전을 생각해 보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? 그래서 [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서 못 풀 것 같다]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

결국 **[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곧 남들도 이해 못하는 것]**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본인이 문제를 풀고 문장 관계를 따져보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.

그 과정에서 **배경지식에 대한 이야기**를 했습니다. 나쁜 것만이 아니다. 다만 지문을 이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, 꼭 명심하세요.

그리고 읽으면서 느끼셨으면 좋았겠지만,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**[반응]**입니다. 분석적인 태도, 객관적인 독해 다 좋습니다. 그러나 때론 그게 여러분을 경직되게 만듭니다.

문장을 읽고 끄덕끄덕하면, 그 내용은 그 순간 암기할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.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, [이게 뭐야!?] 라는 태도는 그 다음 문장에 관심을 가게 만듭니다. [왜 설명 안하지?, 모르겠다 그냥 이렇구나] 라는 것을 중얼 중얼 대면서 가는 과정이 비문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
리딩스킬, 흔히 말하는 구조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구조들을 지문을 읽은 후에야 파악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.

Problem이 나왔을 때, "그럼 해결책은 뭘까?" 라는 반응, 질문이 나왔을 때, "맞든 틀리든 대답해보는 것", "이해가 안 되는 비유,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, [원소리여?]" 라는 반응을 해보는 것, 반응이 사람마다

매우 다르겠지만, 반응의 방향성이 [어느 정도 정해진 것]이 리딩 스킬일겁니다.

무조건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쓰여야만 해 라는 것도 아닙니다.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맞지만, 그냥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 이라고 쓸 수도 있는거니까요. 구조가 구조로서, 분석의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독해를 해 가면서 [서로 약속된 방향]을 제시해주는 지표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생각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, 그래도 가능한 비문학을 1가지 원리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. 물론 지문마다 [포인트가 되는 부분] 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, 문장들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이 내용들이 아마 모든 범주의 비문학을 다룰 수 있을 거예요.

내가 이해 못하는 건, 시험 날도 이해 못합니다. 그걸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

[공지]

● 공부 관련 질문, 국어 관련 질문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**[미라오마의 수능 블로그]**로 연락하길 바랍니다. 수능 때까지 파이팅입니다.

● [질문 게시판]

<http://blog.naver.com/miraoma/220979232250>

● 좋아요, 이웃, 팔로우는 힘이 됩니다 :)

- 공부를 디자인합니다 _ 멘토 미라오마 -

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, 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
미라오마 T 교재